

奇經八脈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고찰
-『難經·二十七難』“脈有奇經八脈者，不拘於十二經”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¹
柳姪我¹ · 丁彰炫¹ *

A Study on the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Eight Extra Meridians

-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re are Eight Extra
Meridians and they don’t be arrested by Twelve Regular
Meridians” in Nanjing 27Nan -

Lyu Jeong-ah¹ · Jeong Chang-hyun¹ *

¹Dept. of Korean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ubject : The physiological characteristic of Eight Extra Meridians.

Objective : This study research physiological characteristic of Eight Extra Meridians that differentiate from the physiological characteristic of Twelve Regular Meridians.

Method : First, we researched the meaning of “There are Eight Extra Meridians and they don’t be arrested by Twelve Regular Meridians” in Nanjing 27Nan compared with the contents of regular Meridians circulation in Huangdineijing. Second, we studied on the origin of Eight Extra Meridians and researched their route. Third, from these researches we drew some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Eight Extra Meridians.

Conclusion : In Huangdineijing, the regular Meridians circulation include the route of Governor Meridian, Conception Meridian, and Heel Meridian. So the sentence in Nanjing 27Nan is contradictory to the contents of Huangdineijing. The origin of Eight Extra Meridians could be found in Huangdineijing. The collateral Meridians of the Uterus and Epiglottis Meridian are specifically formulated to supplying for the Uterus or Epiglottis. Eight Extra Meridians have third qualities of Meridian, collateral Meridian, and the solid viscera keep the Essence Gi, so named ‘Extra’. And they have an intimate association with Extraordinary Organs. They place at the middle axis of human body, thus do higher physiological function that control and regulate the function of Twelve Regular Meridians and Five Viscera & six Bowels for adaptation to the environment.

Key Words : Eight Extra Meridians, physiological characteristic, the middle axis of human body, Extraordinary Organs.

I. 序 論

『黃帝內經』에는 衝脈, 任脈, 督脈, 陰陽蹻脈, 帶脈, 陰陽維脈 각각에 대한 기술 및 설명이 있으나 이들 여덟 맥을 ‘奇經八脈’이라는 명칭으로 묶어서 분류한 것은 『難經』에 가장 먼저 보인다.

『十四經發揮』과 『奇經八脈考』를 포함하여 역대 의서들에 奇經八脈의 유주부위나 穴位, 病症, 脈象에 대하여 많은 설명들이 덧붙여졌으나, 奇經八脈의 인체 내 位相을 取象함에 있어서는 한 걸 같이 『難經·二十七難』의 “脈有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 문장을 언급하는 데에서 시작하고 있다. 奇經八脈의 유주부위나 穴位, 병증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奇經八脈의 十二經脈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알지 못하면 임상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醫學史 전체에서 볼 때 奇經八脈에 관한 醫書의 내용은 많지 않고, 특히 奇經八脈을 모두를 十二經脈 전체와 대별하여 그 특성을 드러낸 논의는 『難經』의 위 문장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脈有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에 대해 글자 그대로의 해석, 奇經八脈에 속하는 맥들의 유주노선 및 그 基源으로 보이는 맥들에 대한 고찰 등의 방법을 통해 『難經』 저자의 본의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奇經八脈의 생리적 특성에 대해 약간의 소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선행연구 및 본고의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등은 본고의 논지를 이끌어가는 도입부가 되는 本論의 첫째 단락에서 논하였다.

II. 本 論

1. “脈有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은 『黃帝內經』의 경맥순환 체계와 모순되는 학설이다.

* 교신저자 : 丁彰枝. 大韓民國 서울 東大門區 回基洞 1番地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E-mail : jeongch@Khu.ac.kr Tel : 02-961-0337
접수일(2013년 7월27일), 수정일(2013년 8월14일),
게재확정일(2013년 8월16일).

『難經·二十七難』에서는 “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이라고 하여 奇經八脈의 여덟 맥과 十二經脈의 열두 맥을 각각 다른 체계로 분류하고, 奇經八脈의 체계가 十二經脈의 체계에 구애되지 않음을 말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滑壽는 『十四經發揮』 「奇經八脈篇」에서 “脈에 ‘奇’와 ‘常’이 있으니, 十二經은 常脈이요, 奇經八脈은 常脈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奇經’으로 일컫는다.”¹⁾라고 하였으며, 李時珍은 『奇經八脈考』 「奇經八脈總說」에서 “奇經은 여덟 脈이니, 十二正經에 구속되고 제어되지 않으며 表裏의 配合이 없기 때문에 ‘奇’로 일컫는다.”²⁾라고 하였다. 張介賓은 滑壽의 말을 그대로 옮겨 『類經圖翼』 「奇經總論」에서 “脈에 ‘奇’와 ‘常’이 있으니, 十二經은 常脈이요, 奇經은 특별히 常脈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奇’로 일컫는다.”³⁾라고 하였다. 任脈과 督脈, 衝脈을 비롯한 帶脈, 陰陽維脈, 陰陽蹻脈을 手足三陰三陽의 十二經脈과 對別하여 ‘奇經八脈’으로 규정된 것은 醫學史에서 『難經』에 가장 먼저 보인다.⁴⁾⁵⁾ 따라서 「二十七難」의 위 문장은 任脈을 비롯한 여덟 맥을 ‘奇經八脈’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분류하게 된 연유이자 奇經八脈의 정의에 해당된다. 『難經』의 原文 및 滑壽를 비롯한 李時珍과 張介賓의 해석은 분명 奇經八脈의 체계가 十二經脈의 체계 밖에 존재하고 있어서 十二經脈의 經脈循環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十

- 1) 滑伯仁 著, 承澗齋 校註, 校註十四經發揮, 上海衛生出版社, 1955(未詳), p.75. “脈有奇常, 十二經者, 常脈也, 奇經八脈, 則不拘於常, 故謂之奇經.”
- 2) 李時珍. 奇經八脈考. 史世勤, 賀昌木 主編, 李時珍全集.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4. p.3629. “奇經凡八脈, 不拘制於十二正經, 無表裏配合, 故謂之奇.”
- 3) 張介賓 著, 類經圖翼, 서울. 一中社. 1992. p.314. “脈有奇常, 十二經者, 常脈也, 奇經特不拘於常, 故謂之奇.”
- 4) 黃龍祥 著, 朴炫局, 尹鐘和, 金基郁 共譯,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법민문화사. 2007. p.607. “奇經八脈의 이름은 『難經』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黃帝內經』에서 뿐만 아니라 『難經』에서도 奇經八脈학설은 十二經脈학설보다 늦게 수립되었고, 또한 『靈樞·經脈』의 경맥학설보다도 늦다.”
- 5) 金容辰은 『黃帝內經』과 『難經』 중 奇經八脈 이론에 대한 연구(金容辰. 黃帝內經與難經中關於奇經八脈理論的考察. 韓國醫學史學會誌. 2000. 13(2). p.61.)에서 奇經八脈 학설이 『難經』의 成書 이전에 형성되어 『難經』에 수록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하였다. 그러나 현존하는 문헌 중에서는 『難經』에 가장 먼저 奇經八脈 학설이 등장하므로, 『難經』을 奇經八脈 학설의 기원으로 보아도 크게 어긋남이 없다.

二經脈의 경맥순환으로 조절되거나 구애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힌다.⁶⁾

그러나 『黃帝內經』에는 脈度의 脈長 셈과 營氣의 순환과정 중에 督脈, 任脈, 陰陽蹻脈이 포함되어 있다. 즉 『靈樞·脈度』에는 총 16장 2척의 경맥순환 길이 중에 7척 5촌 길이의 蹻脈과 각각 4척 5촌 길이의 督脈과 任脈을 포함시키고 있다.

黃帝가 말하기를, 脈度を 듣고자 합니다.

岐伯이 답하여 말하기를, 手의 六陽은 손에서 머리까지 길이가 5척으로, 5를 여섯 배하면 3장입니다. 手의 六陰은 손에서 가슴 속까지 3척 5촌으로, 3을 여섯 배하여 1장 8척이고 5를 여섯 배하여 3척이니 합하여 2장 1척입니다. 足의 六陽은 발에서 위로 머리까지 8척으로, 8을 여섯 배하여 4장 8척입니다. 足의 六陰은 발에서 가슴 속까지 6척 5촌으로, 6을 여섯 배하여 3장 6척이고 5를 여섯 배하여 3척이니 합하여 3장 9척입니다. 蹻脈은 발에서 눈까지 7척 5촌으로, 7을 두 배하여 1장 4척이고 5를 두 배하여 1척이니 합하여 1장 5척입니다. 督脈과 任脈은 각각 4척 5촌으로, 4를 두 배하여 8척이고 5를 두 배하여 1척이니 합하여 9척입니다. 무릇 모두 합하여 16장 2척이니, 이것이 氣의 큰 經隧입니다.

황제가 말하기를, 蹻脈은 陰陽이 있는데 어느 맥이 그 셈에 해당됩니까?

기백이 말하기를, 남자는 그 陽脈을 세고 여자는 그 陰脈을 세니, 셈에 해당되는 것은 經脈이 되고 그 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絡脈이 됩니다.⁷⁾

「脈度」에는 手足 三陰三陽脈과 蹻脈의 脈長 측정 부위 및 脈長과 督脈, 任脈의 脈長을 각각 서술하고, 左右 兩脈의 길이를 모두 합산함으로써 실제 氣가 한 번 순환할 때의 총 길이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脈度」에서는 十二經脈을 위주로 하는 脈氣의 순환체계 내에 蹻脈과 督脈, 任脈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은 『靈樞·五十營』의 내용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사람의 經脈은 상하 좌우 전후 二十八脈으로 몸의 16장 2척을 두루 돌아 二十八宿와 漏水가 100각을 내려오며 응하니, 이로써 (하루의) 밤낮을 구분합니다.⁸⁾

「五十營」에서 人氣가 하루 밤낮 동안 오십 번 순환하는 한 단위로 제시된 16장 2척의 脈長은 28맥의 각각의 脈長을 합한 것으로, 여기서의 28맥은 「脈度」에서 제시한 十二經脈과 蹻脈의 좌우 兩脈에 督脈, 任脈을 합한 수와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靈樞·營氣』에는 營氣가 순환할 때 지나가는 인체의 부위와 경유하는 經脈들을 서술하고 있다. 즉 穀이 胃로 들어가서 동화작용을 거친 다음 精鍊되어 ‘經隧’로 행하는 氣가 ‘常營無已, 終而復始’하게 순환하는 길을 手太陰脈에서 부터 시작하여 차례대로 설명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營氣의 길은 穀을 들이는 것을 보배로 삼습니다. 穀이 胃로 들어오면 이에 肺로 전해져서 가운데로 흐르고 넘치며 밖으로 퍼져 흩어지며, 정미하고 섞이지 않은 것은 經隧로 행하여 항상 들

6) 陳柱杓은 『醫學入門』의 奇經八脈에 대한 주석(李榘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19.)에서 『難經』의 이 문장에 대해 “奇經八脈과 十二經脈의 순환은 다르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15. “黃帝曰, 願聞脈度. 岐伯答曰, 手之六陽, 從手至頭, 長五尺, 五六三丈. 手之六陰, 從手至胸中, 三尺五寸, 三六一丈八尺, 五六三尺, 合二丈一尺. 足

之六陽, 從足上至頭, 八尺, 六八四丈八尺. 足之六陰, 從足至胸中, 六尺五寸, 六六三丈六尺, 五六三尺, 合三丈九尺. 蹻脈從足至目, 七尺五寸, 二七一丈四尺, 二五一尺, 合一丈五尺. 督脈任脈, 各四尺五寸, 二四八尺, 二五一尺, 合九尺. 凡都合一十六丈二尺, 此氣之大經隧也. 黃帝曰, 蹻脈有陰陽, 何脈當其數. 岐伯曰, 男子數其陽, 女子數其陰, 當數者爲經, 其不當數者爲絡也.”

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11 “人經脈上下左右前後二十八脈, 周身十六丈二尺, 以應二十八宿, 漏水下百刻, 以分晝夜.”

아 그치지 않으며 마치면 다시 시작하니, 이것을 일러 天地의 기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氣가 太陰脈으로부터 나와 手陽明脈으로 흐르니 …… 足厥陰脈에 합하고 위쪽으로 행하여 肝에 이르며, 肝으로부터 올라가 肺로 흐른 후 올라가 喉嚨을 따라 頰頰의 竅로 들어가며 畜門에서 다합니다. 그 가지로 갈라진 것은 이마로 올라가 정수리를 따라 뒷목 가운데로 내려가서 脊骨을 따라 骶로 들어가니 이것이 督脈입니다. 陰器에 絡하고 위쪽으로 陰毛 가운데를 지나 배꼽 가운데로 들어가서 배속을 따라 缺盆으로 들어가서 아래로 肺의 가운데로 흘러서 다시 太陰脈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營氣의 행하는 바이며, 거스르고 좇는 일정함입니다.⁹⁾

十二經脈을 차례로 경유한 營氣는 足厥陰脈과 肝을 거쳐 위로 肺(膈)로 흘러든 후 喉嚨과 頰頰, 額, 巔을 지난 후 項中으로 내려가 脊을 따라 骶로 들어가는데, 額에서 骶까지는 督脈의 구간이라고 명시하였으며, 뒤이은 陰器, 毛中, 臍中, 腹裏의 구간은 張介賓, 張志聰 등이 任脈의 구간이라고 설명하거나 ‘是任脈也’의 4글자가 더 들어가야 한다고 주석하였다.¹⁰⁾¹¹⁾ 다만 「脈度」에서 脈長 측정 부위를 “從足

至目”으로 제시한 蹻脈은 「營氣」의 營氣 순환 경로 중 어느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督脈과 任脈의 예와 「五十營」 “二十八脈, 周身十六丈二尺” 서술로 볼 때 營氣의 순환 경로 중에 포함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상 『靈樞』 「脈度」 「五十營」 「營氣」의 내용은 일관성이 있으며 如環無斷한 營氣의 순환경로 내에 督脈과 任脈, 蹻脈의 구간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 『黃帝內經』의 이와 같은 서술은 十二經脈의 순환체계와 督脈, 任脈, 蹻脈의 순환체계를 분리하고 있지 않으며, 督脈, 任脈, 蹻脈을 비롯한 衝脈, 帶脈, 陰陽維脈의 순환체계를 독립시켜 十二經脈의 순환체계와 별도로 설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難經·二十七難』에서 奇經八脈에 대해 제시한 “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의 정의는 『黃帝內經』에서 서술하고 있는 경맥순환 체계 및 내용과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奇經八脈에 관해서 『難經』에서 제시한 내용이 『黃帝內經』의 서술과 모순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 黃龍祥은 여기에 대해 하나의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中國鍼灸學術史大綱』에서 “『黃帝內經』과 『難經』의 기제가 다른 것은, 어떤 것은 기원이 다른 것이고, 어떤 것은 같은 문헌이라도 시기가 다른 傳本을 채용한 것인데, 이러한 것도 奇經八脈의 형성과 변천 과정에서 고찰되어야 한다.”¹²⁾라고 하여, 任脈, 督脈과 蹻脈에 대하여 『黃帝內經』과 『難經』에서 각각 기원이 다른 학설 혹은 시기가 다른 傳本을 채택함으로써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難經·二十七難』의 “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 정의가 『黃帝內經』에서 서술한 경맥순환 체계 및 내용과 모순된다는 고찰을 바탕으로, 『難經』에서 奇經八脈에 대해 단순히 『黃帝內經』

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13. “黃帝曰, 營氣之道, 內穀爲寶, 穀入於胃, 乃傳之肺, 流溢於中, 布散於外, 精傳者, 行於經隧, 常營無已, 終而復始, 是謂天地之紀. 故氣從太陰出注手陽明, 上行注足陽明, 下行至跗上, 注大指間, 與太陰合, 上行抵脾, 從脾注心中, 循手少陰, 出腋下臂, 注小指, 合手太陽, 上行乘腋, 出頰內, 注目內眥, 上巔下項, 合足太陽, 循脊, 下尻, 下行注小指之端, 循足心, 注足少陰, 上行注腎, 從腎注心, 外散於胸中, 循心注脈, 出腋, 下臂, 出兩筋之間, 入掌中, 出中指之端, 還注小指次指之端, 合手少陽, 上行注臆中, 散於三焦, 從三焦注臍, 出臍, 注足少陽, 下行至跗上, 復從跗注大指間, 合足厥陰, 上行至肝, 從肝上注肺, 上循喉嚨, 入頰頰之竅, 究於畜門. 其支別者, 上額, 循巔, 下項中, 循脊, 入臍, 是督脈也, 絡陰器, 上過毛中, 入臍中, 上循腹裏, 入缺盆, 下注肺中, 復出太陰, 此營氣之所行也, 逆順之常也.”
10) 金達鎬 編譯, 金重漢 監修. 補注注解 黃帝內經靈樞. 서울. 醫聖堂. 2002. p.479. “『難經·經絡類·營氣運行之次』督脈, 自尾骶前絡陰器, 即名任脈. 上過陰毛中, 入臍上腹, 入缺盆,

下肺中, 復出於手太陽經, 前經脈篇末及任督, 而此始全備, 是十四經營氣之序.”

11) 金達鎬 編譯, 金重漢 監修. 補注注解 黃帝內經靈樞. 서울. 醫聖堂. 2002. p.480. “『靈樞懸解·營氣三十四』由尾骶入, 前行絡陰器, 上過毛中, 入臍中, 上循腹裏, 入於缺盆, 是任脈也.” “『靈樞識』簡案, 據上文之例, 此下當有是任脈也四字, 然骨空論任督互稱, 以其爲一源也, 故不別著任脈耶.”
12) 黃龍祥 著. 朴炫局, 尹鐘和, 金基郁 共譯.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607.

의 내용을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黃帝內經』에 기술된 내용과 다른 측면의 학설을 제시하였음을 전제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難經』의 저자가, 『黃帝內經』에서 十二經脈의 如環無斷한 순환체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督脈, 任脈, 蹻脈을 따로 衝脈, 帶脈, 維脈과 함께 분류한 후 ‘奇經八脈’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또 十二經脈의 순환체계에 구애받지 않는 별도의 經脈 체계로 정의함으로써 부각시키고자 한 이들 八脈이 十二經脈과 다른 특성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이 본고의 논지이다.

『難經』에서 奇經八脈 학설을 제시한 이래로 『脈經』, 『諸病源候論』, 『黃帝內經太素』, 『太平聖惠方』, 『聖濟總錄』, 『十四經發揮』, 『奇經八脈考』, 『臨證指南醫案』, 『通俗韓醫學原論』 등의 서적에서 奇經八脈 학설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¹³⁾ 그러나 奇經八脈에 관한 『難經』의 기술은 매우 간략하기 때문에 자연히 『黃帝內經』 여러 편에 산재해 있는 任脈, 督脈, 蹻脈, 衝脈, 帶脈, 維脈에 대한 서술을 더하여 내용을 풍부히 하고자 하였다.¹⁴⁾ 그 과정에서 奇經八脈을 奇經八脈이 되도록 하는 『難經』의 본래 취지와 생리적 특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보편화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현대의 한의학에서 奇經八脈 이론의 임상 적용이 보편화되지 못했다는 것이 논자의 견해이다. 奇經八脈 이론의 임상 적용이 보편화되지 못한 상황은 1577~8년 무렵 李時珍이 『奇經八脈考』를 출간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時珍과

같은 마을 사람이었던 顧問은 「奇經八脈考引」에서, 正經을 놔두고 奇經을 고찰한 이유에 대해 奇經에 대해 사람들이 아는 바가 소략해서라는 당시의 정황을 기술하고 있다.¹⁵⁾

奇經八脈 학설의 계승, 발전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로 李東鎬의 「奇經八脈 理論의 形成과 發達에 관한 醫史學的 考察」¹⁶⁾과 片誠範의 「奇經八脈의 生理作用, 流注經路, 病證에 대한 研究」¹⁷⁾, 金容辰의 「黃帝內經與難經中關於奇經八脈理論的 考察」¹⁸⁾이 있다. 尹鍾和의 「奇經八脈에 관한 연구」¹⁹⁾와 白上龍의 「正經과 奇經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²⁰⁾, 「難經의 奇經八脈論에 대한 비판적 고찰」²¹⁾ 등은 正經과 奇經의 관계 및 正經에 대별되는 奇經의 생리적 특성을 고찰한 연구들이다. 李起成의 「奇經八脈과 八脈八會穴에 관한 研究」²²⁾, 李俊範의 「奇經八脈에서의 鍼과 藥의 相關性 연구」²³⁾, 洪永植의 「奇經八脈과 八脈交會穴에 對한 文獻的 考察」²⁴⁾ 등은 奇經八脈의 臨床 적용을 모색한 연구들이다. 金京煥의 「氣功의 周天功과 奇經八脈에 관한 考察」²⁵⁾은 道家

13) 李東鎬는 奇經八脈 學說의 形成과 발전 過程을 高 察한 연구(李東鎬, 朴贊國, 奇經八脈 理論의 形成과 發達에 관한 醫史學的 考察,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6. 10. p.722.)에서 奇經八脈 學說의 최초 언급을 『黃帝內經』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견해는 學術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黃帝內經』에 衝脈, 任脈, 督脈, 蹻脈, 帶脈, 維脈에 대한 서술과 설명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奇經八脈 學說’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 八脈에서 어떠한 공통점을 유추하고 그에 따라 十二經脈과 다른 별도의 명칭과 기능을 부여한 것은 『難經』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따라서 ‘奇經八脈 學說’은 『難經』에서 처음으로 언급하였다고 하여야 學術적으로 타당하다.

14) 金容辰, 黃帝內經與難經中關於奇經八脈理論的 考察, 韓國醫史學會誌, 2000. 13(2). p.60, 61. “將黃帝內經與難經中 有關奇經八脈的部分與《奇經八脈考》相比較, 《奇經八脈考》可以認爲是將黃帝內經與難經中所有有關奇經八脈理論 進行綜合·整理和修補而成.”

15) 李時珍, 奇經八脈考, 史世勤, 賀昌木 主編, 李時珍全集,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4. p.3628. “奇經八脈考者, 李君 灑湖所撰輯以活人者也. 經有正有奇, 獨考奇者, 奇經人所略, 故致詳焉.”

16) 李東鎬, 朴贊國, 奇經八脈 理論의 形成과 發達에 관한 醫史學的 考察,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6. 10. pp.671-725.

17) 片誠範, 姜政秀, 奇經八脈의 生理作用, 流注經路, 病證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韓醫學研究所論文集, 1998. 7(1). pp.411-434.

18) 金容辰, 黃帝黃帝內經與難經中關於奇經八脈理論的 考察, 韓國醫史學會誌, 2000. 13(2). pp.57-61.

19) 尹鍾和, 奇經八脈에 관한 研究, 동서의학, 1991. pp.48-64.

20) 白上龍, 正經과 奇經의 相互關係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1. 14(1). pp.1-10.

21) 白上龍, 朴贊國, 『難經』의 奇經八脈論에 대한 비판적 高 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 17(1). pp.15-27.

22) 李起成, 尹鍾和, 奇經八脈과 八脈八會穴에 관한 研究, 大韓氣功醫學會誌, 1998. 2(1). pp.103-118.

23) 李俊範, 金慶鎬, 尹鍾和, 奇經八脈에서의 鍼과 藥의 相關性 研究-『鍼方六集』중 ‘旁通集’을 중심으로-, 大韓鍼灸學會誌, 1998. 15(1). pp.123-134.

24) 洪永植, 李秉烈, 奇經八脈과 八脈交會穴에 對한 文獻的 考察, 大田大學校韓醫學研究所論文集, 1996. 5(1). pp.329-344.

25) 金京煥, 金慶鎬, 尹鍾和, 金甲成, 氣功의 周天功과 奇經八

의 內丹修鍊과 奇經八脈의 관련성을 고찰한 연구이다. 이 중 金容辰의 위 연구에서는 『難經』 奇經八脈 이론의 독창성을 언급하면서, 奇經八脈 이론이 『黃帝內經』과 학술적으로 전혀 다른 계열의 서적을 참고하여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²⁶⁾ 그러나 여덟 맥을 묶어서 ‘奇經’의 명칭을 부여한 외에 『黃帝內經』과 학술적으로 전혀 다른 계열의 서적을 참고했을 것이라 추정할 만큼의 『黃帝內經』 학설과 차이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2. 『黃帝內經』 중 奇經八脈의 基源으로 보이는 ‘脈’들에 대한 고찰

앞에서 “不拘於十二經”의 奇經八脈 정의를 『黃帝內經』의 경맥순환 체계에 근거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黃帝內經』의 내용과 모순되었으므로, 『難經』의 奇經八脈 정의에 대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二十七難」과 「二十八難」에는 十二經脈과 奇經八脈을 각각 ‘溝渠’와 ‘深湖’에 對別하는 비유가 있고, “入於八脈而不環周”라고 하여 十二經脈의 경맥순환 체계와 구분됨을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²⁷⁾²⁸⁾ 여기에 대하여 대다수 연구자들이 奇經八脈이 十二經脈의 잉여 氣血을 보관하였다가 필요할 때 다시 공급한다는 의미로 파악하여 『難經』의 본의와 맞지 않는 해석을 하였다. 아무튼 溝渠와 深湖의 비유 및 “入於八脈而不環周”는 “奇經

八脈者, 不拘於十二經”의 동어반복이며, 오히려 잘못 해석될 여지까지 있음으로 奇經八脈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접근이 더욱 요구되었다.

『難經』에서 奇經八脈으로 분류한 督脈, 任脈, 陰陽蹻脈, 衝脈, 帶脈, 陰陽維脈들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 것인가? 이들 여덟 맥 모두가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맥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을 도출한다면, 그것이 곧 奇經八脈의 생리적 특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奇經八脈으로 묶이기 이전의 원형에서 이들 여덟 맥이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는지도 고찰되어야 한다. 현재 정설로 굳어진 奇經八脈 이론에서는 奇經八脈의 중요한 특성으로 十二經脈과 달리 臟腑와 직접적인 屬絡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점을 든다.²⁹⁾ 그러나 『黃帝內經』에는 奇經八脈의 基源으로 보이는 맥들 외에도 臟腑와 직접적인 屬絡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맥들이 다수 있다. 臟腑와 직접적인 屬絡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이들 脈 중에서 이후 奇經八脈으로 분류된 맥들만의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다면 『難經』의 저자가 ‘奇經八脈’을 분류한 기준을 추측하여 奇經八脈 정의의 실제적인 의미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1) 督脈, 任脈, 衝脈, 蹻脈

臟腑와 직접적인 屬絡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맥들 중 督脈, 任脈, 衝脈, 蹻脈에 대해서는 그 유주경로가 『黃帝內經』에 비교적 뚜렷하게 나와 있다. 督脈의 유주경로는 『素問·骨空論』³⁰⁾과 『靈樞·營氣』³¹⁾에 자세히 기술되었고, 任脈의 유주경로는 『素問·骨空

脈에 관한 고찰. 大韓鍼灸學會誌. 1995. 12(2), pp.249-178.

26) 金容辰. 黃帝黃帝內經與難經中關於奇經八脈理論的考察. 韓國醫學學會誌. 2000. 13(2). p.61. “奇經八脈理論也不可排除是參考當時與黃帝內經毫無相干的通過其他途徑, 徐徐發展的書籍的可能.”

27) 尹暢烈, 金容辰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周珉出版社. 2007. p.525. “脈有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 何也? 然, 有陽維, 有陰維, 有陽蹻, 有陰蹻, 有衝, 有督, 有任, 有帶之脈. 凡此八脈者, 皆不拘於經, 故曰奇經八脈也. 經有十二, 絡有十五, 凡二十七氣, 相隨上下, 何獨不拘於經也? 然, 聖人圖設溝渠, 通利水道, 以備不然. 天雨降下, 溝渠溢滿, 當此之時, 霧霈安作, 聖人不能復圖也. 此絡脈滿溢, 諸經不能復拘也.”

28) 尹暢烈, 金容辰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周珉出版社. 2007. p.532. “比于聖人圖設溝渠, 溝渠滿溢, 流于深湖, 故聖人不能拘通也. 而人脈隆盛, 入於八脈而不環周, 故十二經亦不能拘之.”

29)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2.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182-183.

3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209. “督脈者, 起於少腹, 以下骨中央, 女子入繫廷孔, 其孔溺孔之端也, 其絡循陰器, 合纂間, 繞纂後, 別繞臀, 至少陰與巨陽, 中絡者, 合少陰, 上股內後廉, 貫脊屬腎, 與太陽起於目內眥, 上額交巔, 上入絡腦, 還出別下項, 循肩膊內, 俠脊抵腰中, 入膂絡腎. 其男子循莖下至纂, 與女子等. 其少腹直上者, 貫脊中央, 上貫心, 入喉上頤, 環唇上繫兩目之下中央. 此生病, 從少腹上衝心而痛, 不得前後, 爲衝疝, 其女子不孕, 產痔遺溺溢乾.”

3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13. “其支別者, 上額, 循巔, 下項中, 循脊, 入臍, 是督脈也.”

論』³²⁾과 『靈樞·五音五味』³³⁾에 기술되었으며, 衝脈의 유주경로는 『素問·骨空論』³⁴⁾과 『素問·痿論』³⁵⁾, 『靈樞·逆順肥瘦』³⁶⁾, 『靈樞·動脈』³⁷⁾, 『靈樞·五音五味』³⁸⁾에 자세히 기술되었고, 蹻脈의 유주경로는 『靈樞·脈度』³⁹⁾, 『靈樞·寒熱病』⁴⁰⁾에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 帶脈, 維脈, 飛陽脈

- 3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209. “任脈者, 起於中極之下, 以上毛際, 循腹裏, 上關元, 至咽喉, 上頤循面入目.”
- 3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82. “衝脈任脈, 皆起於胞中, 上循背裏, 爲經絡之海. 其浮而外者, 循腹右, 上行會於咽喉, 別而絡唇口, 血氣盛則充膚熱肉, 血獨盛則澹滲皮膚, 生毫毛.”
- 3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209. “衝脈者, 起於氣街, 並少陰之經, 俠齊上行, 至胸中而散.”
- 3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66. “衝脈者, 經脈之海也, 主滲灌谿谷, 與陽明合於宗筋. 陰陽摠宗筋之會, 會於氣街, 而陽明爲之長, 皆屬於帶脈, 而絡於督脈.”
- 3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89. “黃帝曰, 少陰之脈獨下行, 何也. 岐伯曰, 不然, 夫衝脈者, 五藏六府之海也, 五藏六府皆稟焉. 其上者, 出于頰頰滲諸陽, 灌諸精. 其下者, 注少陰之大絡, 出於氣街, 循陰股內廉, 入臍中, 伏行肝骨內, 下至內踝之後屬而別. 其下者, 並於少陰之經, 滲三陰, 其前者, 伏行出跗屬, 下循跗, 入大指間, 滲諸絡而溫肌肉. 故別絡結則跗上不動, 不動則厥, 厥則寒矣.”
- 3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67. “岐伯曰, 衝脈者, 十二經之海也, 與少陰之大絡, 起於腎下, 出於氣街, 循陰股內廉, 邪入臍中, 循脛骨內廉, 並少陰之經, 下入內踝之後, 入足下. 其別者, 邪入踝, 出屬跗上, 入大指之間, 注諸絡, 以溫足脛, 此脈之常動者也.”
- 3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82. “衝脈任脈, 皆起於胞中, 上循背裏, 爲經絡之海. 其浮而外者, 循腹右, 上行會於咽喉, 別而絡唇口, 血氣盛則充膚熱肉, 血獨盛則澹滲皮膚, 生毫毛.”
- 3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15. “蹻脈者, 少陰之別, 起於然骨之後, 上內踝之上, 直上循陰股, 入陰, 上循胸裏, 入缺盆, 上出人迎之前, 入頤, 屬目內眥, 合於太陽.”
- 4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30. “足陽明有挾鼻入於面者, 名曰懸顛. 屬口對入繫目本, 視有過者取之. 損有餘, 益部足, 反者益. 其足太陽有痛項入於腦者, 正屬目本, 名曰眼系, 頭目苦痛, 取之在項中兩筋間. 入腦乃別, 陰蹻陽蹻, 陰陽相交, 陽入陰, 陰出陽, 交於目銳眥, 陽氣盛則瞑目, 陰氣盛則瞑目.”

帶脈과 維脈은 『黃帝內經』에 그 유주노선이 뚜렷이 나와 있지 않는데, 이 중 帶脈은 『素問·痿論』⁴¹⁾에 衝脈, 督脈, 陽明脈과 더불어 宗筋 및 足痿에 대한 작용을 말하였고, 『靈樞·經別』⁴²⁾에 足少陰腎脈이 14椎에서 出하여 帶脈에 속한다고 하였다. 維脈에 대해서는 『黃帝內經』 중에 기술한 것이 적은데, 『素問·刺腰痛論』에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解脈’, ‘同陰之脈’, ‘衝絡之脈’, ‘會陰之脈’, ‘昌陽之脈’, ‘散脈’, ‘肉里之脈’ 등의 脈名 중에 陽維之脈과 陰維之會에 대한 언급이 있다.

陽維의 脈이 腰痛을 앓게 하면 아픈 곳이 발끈하고 부으니 陽維脈을 자침하는데, 陽維脈은 太陽脈과 장딴지 아래 사이 땅에서 1척 떨어진 곳에서 합한다.⁴³⁾

飛陽의 脈이 腰痛을 앓게 하면 아픈 곳이 갑갑하고 심하면 슬프고 두려우니 飛陽脈을 자침하는데, (飛陽脈은) 안쪽 복사뼈 위 5촌의 少陰脈의 앞쪽에서 陰維脈과 교회하는 곳에 있다.⁴⁴⁾

陰維脈과 교회하는 것으로 기술된 飛陽脈은 『靈樞·根結』과 『靈樞·經脈』에 나오는 ‘飛揚’과 그 명칭이 유사하다. 『靈樞·經脈』에는 ‘飛揚’이 足太陽의 絡脈이 足太陽 經脈에서 갈라져 나오는 絡穴의 명칭으로 바깥쪽 복사뼈 위 7촌에 있다.⁴⁵⁾ ‘根結’에서도

- 4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66. “陽明者, 五藏六府之海, 主潤宗筋, 宗筋主束骨而利機關也. 衝脈者, 經脈之海也, 主滲灌谿谷, 與陽明合於宗筋. 陰陽摠宗筋之會, 會於氣街, 而陽明爲之長, 皆屬於帶脈, 而絡於督脈. 故陽明虛則宗筋縱, 帶脈不引, 故足痿不用也.”
- 4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97. “足少陰之正, 至臍中, 別走太陽, 而合上至腎, 當十四椎真(季), 出屬帶脈, 直者, 繫舌本, 復出於項, 合於太陽, 此爲一合. 成以諸陰之別, 皆爲正也.”
- 4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53. “陽維之脈, 令人腰痛, 痛上拂然腫, 刺陽維之脈, 脈與太陽合膕下間, 去地一尺所.”
- 4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53. “飛陽之脈令人腰痛, 痛上拂拂然, 甚則甚以恐, 刺飛陽之脈, 在內踝上五寸, 少陰之前, 與陰維之會.”

足太陽脈의 脈氣가 入하는 곳의 穴名이다.⁴⁵⁾ 그러나 『素問·刺腰痛論』의 飛陽之脈은 陽維之脈 등과 함께 어떠한 脈의 명칭으로 쓰이고 있으며, 그 부위도 內踝 위 5촌으로 飛揚穴과는 반대쪽이다. 黃龍祥은 『中國鍼灸學術史大綱』에서 『刺腰痛論』의 陽維之脈과 飛陽之脈에 대하여 十二經脈과 같은 ‘脈’이 아니라 動脈의 박동이 있는 곳에서 脈診을 하고 刺法 등의 施療를 하였던 ‘脈口’의 개념이며, 후대에 『聖濟總錄』, 『奇經八脈考』 등 奇經八脈 학설을 발전시킨 서적들을 통해 순행부위가 확장되면서 유주노선이 있는 ‘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하였다.⁴⁷⁾ 黃龍祥의 설명에 의하면 『素問·刺腰痛論』에 나오는 陽維之脈과 飛陽之脈은 인체 여러 부위에 걸친 순행노선을 가지는 ‘맥(meridian)’이 아니라 하나의 부위에 국한되고 맥동을 느낄 수 있는 ‘맥동 구간(a section of pulse)’으로 볼 수 있다. 즉 手太陰肺脈의 유주경로 중 左右 손목 부위에 약 2촌 길이로 맥동이 길게 축진되는 부위를 특별히 ‘氣口脈’으로 일컫는 것처럼 陽維脈과 陰維脈의 基源은 하나의 맥동 구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素問·刺腰痛論』에 나오는 解脈, 同陰之脈, 衡絡之脈, 會陰之脈, 昌陽之脈, 散脈, 肉里之脈 등이 모두 이와 같이 특정한 맥동 구

간에 이름을 붙인 것이며, 이들은 모두 腰痛을 유발할 수 있으며 동시에 腰痛의 치료처가 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⁴⁸⁾

3) 胞脈, 會厭脈

한편 奇經八脈의 基源이 되는 맥을 논함에 있어 빠질 수 없는 것이 胞脈과 會厭之脈이다. 『素問·評熱病論』에는 風水 증상의 하나로서 月事不來의 병리가 설명되어 있다. 屬心 絡胞中하는 胞脈이 心과 女子胞를 연계하는데, 風水로 인하여 心氣가 아래로 통하지 못하여서 月事が 오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월경이 오지 않는 것은 胞脈이 달린 것이다. 胞脈은 心에 屬하고 胸中에 絡하는데, 지금 氣가 위로 肺를 惝박하여 心氣가 아래로 통하지 못하므로 월경이 오지 않는 것이다.⁴⁹⁾

여기서의 胞脈은 心과 자궁을 연결하여 心氣를 자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맥으로 五臟六腑 중의 心과 奇恒之腑인 자궁의 연결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素問·奇病論』에 나오는 胞絡脈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제가 물어 말하기를, 사람이 아이를 가져서 아홉 달에 병어리가 됨은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기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胞의 絡脈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말하기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백이 말하기를, 胞絡은 腎에 이어져 있으며 少陰脈은 腎을 관통하여 舌本에 이어져 있으므로 (胞絡脈이 끊어지면) 말을 하지

4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84. “足太陽之別, 名曰飛揚, 去踝七寸, 別走少陰.”

4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50. “足太陽根於至陰, 溜於京骨, 注於崑崙, 入於天柱飛揚也.”

47) 黃龍祥 著. 朴炫局, 尹鐘和, 金基郁 共譯.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p.423-424. “아마 이 두 맥은 원래 刺脈·診脈 부위, 즉 ‘脈口’의 개념이지 ‘經脈’의 개념이 아닐 것이다. 혹은 당시에는 있었으나 현존본 『黃帝內經』에는 기재되지 않았거나, 혹은 『難經』을 편찬할 때에 원문이 이미 실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 두 맥의 순행은 오랫동안 보완되지 못했다. 북송 말기에 이르러 『難經』에서 제시한 ‘奇經八脈’ 학설을 완성시키기 위해 송대 의관이 『聖濟總錄』을 편찬할 때, 비로소 당시에 관한 침구경전인 『銅人俞穴針灸圖經』에 적힌 陰維·陽維 交會穴의 부위에 근거하여 이 두 맥의 대략적인 순행부위를 묘사하였다. 당시 이 작업의 책임을 맡은 의관은 상당히 신중하여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추측해낸 순행선과 維脈의 순행선을 동일시하지 않았으며, 명대에 이르러 李時珍이 『奇經八脈考』를 편찬할 때에 보다 더 가궁하여 형식상으로 경맥의 순행선에 접근시켰다. 후인들도 이러한 내력을 잘 알지 못하였다.”

4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53.

4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24. “月事不來者, 胞脈閉也, 胞脈者屬心而絡於胞中, 今氣上迫肺, 心氣不得下通, 故月事不來也.”

못합니다.

황제가 말하기를,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기백이 말하기를, 치료하지 않으니 열이 달이 되면 회복됩니다.⁵⁰⁾

「奇病論」에서는 胞絡脈이 腎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評熱病論」의 내용과 합하여 고찰하면 心→胞脈→子宮→胞絡→腎→少陰脈→舌本の 구조로 된 맥의 연결이 있고, 임신 9개월에 胞絡脈이 腎과의 연결을 끊으므로 舌本이 心과 이어지지 못하여 말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胞脈은 心과의 연결을 주로 하고 腎에도 絡脈을 두어서 자궁과 心, 腎 사이에 직접적인 연계를 하기 위한 맥임을 알 수 있다. 胞脈이 임신 9개월에 腎과의 연결을 끊는 이유는 본격적인 출산을 예고하는 신호로서 臨產 離經脈이 나타나는 현상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臨產 離經脈의 脈理도 태아가 모체의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면 자궁과 어머니 腎을 연결한 胞絡脈의 연결이 끊어짐으로써 발생한다.⁵¹⁾⁵²⁾ 여기에 더하여 『靈樞·憂恚無言』에는 音聲이 나오는 문호를 會厭으로 정의하고, 會厭脈이 足少陰腎脈을 통하여 舌本 및 橫骨과 연계되고 다시 任脈으로도 絡하여, 任脈의 天突穴을 자침함으로써 會厭의 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이 있다.

會厭은 音聲의 門戶입니다. -중략-

5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76. “黃帝問曰, 人有重身, 九月而瘖, 此爲何也. 岐伯對曰, 胞之絡脈絕也. 帝曰, 何以言之. 岐伯曰, 胞絡者, 繫於腎, 少陰之脈, 貫腎繫舌本, 故不能言. 帝曰, 治之奈何. 岐伯曰, 無治也, 當十月復.”

51) 南京中醫學院 校釋. 諸病源候論校釋 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193. “產婦腹痛而腰不痛者, 未產也; 若腹痛連腰甚者, 卽產. 所以然者, 腎候于腰, 胞系于腎故也. 診其尺脈, 轉急如切繩轉珠者, 卽產也.”

52) 上海中醫學院中醫文獻研究所 主編. 歷代中醫珍本集成 十. 宋 史堪 撰. 史載之方.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p.42-43. “婦人欲產, 漿破血下, 渾身疼. 診其脈, 當洪大而有骨力, 尺澤透而長, 方是正產. 謂孕則尺脈不來, 欲產而漿下, 則尺澤透. 若渾身疼甚. 而漿未破, 血不肯下, 卽難產. 凡渾身痛甚, 須是腰痛連穀道疼進痛, 方是正候, 以少陰犯胞絡脈, 連腰過脊及肚門. 若只是腹痛, 不可用作正產候.”

이런 까닭으로 會厭이 작으면서 빠르고 얇으면 그 열고 닫는 것이 순조로워서 氣를 내보내는 것이 쉽습니다. 會厭이 크고 두터우면 열고 닫는 것이 어려워져서 氣를 내보내는 것이 느리므로 말이 무거워집니다. 사람이 갑자기 병어리가 되는 것은 寒氣가 會厭에 窒하여 會厭이 발하지 못하거나, 발하더라도 아래로 이르지 못하여 열고 닫는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황제가 말하기를, 刺法은 어떠합니까?

기백이 말하기를, 足少陰腎脈은 위로 舌本에 이어져있으며 橫骨에 絡하고 會厭에서 마치니, 그 血脈을 두 번 사하면 濁氣가 이에 제거됩니다. 會厭脈은 위로 任脈에 絡하므로 天突을 취하면 會厭이 곧 발할 것입니다.⁵³⁾

「憂恚無言」에 나오는 會厭脈은 音聲의 출로가 되는 會厭의 기능을 足少陰腎脈 및 任脈과 연계하기 위한 맥으로 보인다. 足少陰腎脈이 絡하는 橫骨은 곧 자궁으로 볼 수 있으니, 會厭脈은 결과적으로 앞의 「評熱病論」과 「奇病論」의 胞脈과도 연결된다. 즉 心→胞脈→子宮→胞絡→腎→足少陰腎脈→舌本→會厭→會厭脈→任脈의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 내용으로 볼 때 胞脈과 會厭脈은 인체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궁 및 會厭과 같은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장부 및 기능수행 부위를 연결하는 특수한 맥을 설정한 것으로, 인체의 몇몇 부위에 한정된 순행노선을 가지는 맥(meridian)이다. 이들은 心이나 腎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며, 특히 胞脈은 心에 屬한다는 기술이 있기도 하지만 해당 臟腑가 그 맥에 전적으로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十二經脈

5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95. “會厭者, 音聲之戶也. -중략- 是故厭小而疾薄, 則發氣疾, 其開闔利, 其出氣易. 其厭大而厚, 則開闔難, 其氣出遲, 故重言也. 人卒然無音者, 寒氣客於厭, 則厭不能發, 發不能下至, 其開闔不致, 故無音. 黃帝曰, 刺之奈何. 岐伯曰, 足之少陰, 上繫於舌, 絡於橫骨, 終於會厭, 兩瀉其血脈, 濁氣乃辟. 會厭之脈, 上絡任脈, 取之天突, 其厭乃發也.”

과 五臟六腑가 맺는 독점적인 屬絡 관계와는 다르다. 이러한 점은 奇經八脈의 정의인 “不拘於十二經”의 해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生殖이나 音聲의 발생 등 특수한 작용을 하는 인체 기관을 중심으로 그 기관의 작용을 지지하거나 확산하기 위해 형성한 특수한 脈絡은 十二經脈의 일반적인 순환체계에서 벗어나 있어야 그 특수 작용의 고유성을 보존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자궁 및 생식기→少陰脈→咽喉로 이어지는 胞脈과 會厭脈의 순행노선은 『素問·骨空論』에 기술된 任脈 및 督脈 유주노선, 『靈樞·脈度』에 기술된 蹻脈의 유주노선, 『靈樞·五音五味』에 기술된 衝脈, 任脈의 유주노선과 중첩되는 바가 많다는 것이다.

4) 伏衝脈, 伏膂脈

『靈樞·百病始生』과 『靈樞·歲露論』에는 伏衝之脈에 관한 언급이 있다. 『百病始生』에서는 인체의 表部에서 裏部로 邪氣가 傳入하는 과정을 邪氣가 머무르는 인체 부위를 단위로 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伏衝之脈은 邪氣가 腸胃로 들어가기 전단계의 인체부위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虛邪가 사람에게 적중함을 피부로부터 시작하니, 피부가 느슨해지면 腠理가 열리고 (腠理가) 열리면 邪氣가 毛鬚을 따라 들어오며 들어오면 깊이 닿고 깊이가 닿으면 毛鬚이 서고 毛鬚이 서면 오싹해지므로 피부가 아픕니다. 정체가 되어 가지 않으면 전하여 絡脈에 머무르니, 絡脈에 있을 때에는 肌肉이 아픈데 그 통증이 때때로 그침은 큰 經脈이 대신한 것입니다. 정체가 되어 가지 않으면 전하여 經脈에 머무르니, 經脈에 있을 때에는 오싹하며 잘 납니다. 정체가 되어 가지 않으면 전하여 輸穴에 머무르니, 輸穴에 있을 때에는 여섯 經脈이 사지로 통하지 않으므로 사지의 관절이 아프고 허리와 척골이 이에 뻣뻣해집니다. 정체가 되어 가지 않으면 전하여 伏衝脈에 머무르니, 伏衝脈에 있을 때에는 몸이 무겁

고 몸통이 아픕니다. 정체가 되어 가지 않으면 전하여 腸胃에 머무르니, 腸胃에 있을 때에는 끊어오르는 소리가 나고 배가 부푸는데 寒이 많으면 장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며 밥알 섞인 설사를 하고 먹은 것이 소화되지 않으며 熱이 많으면 묽은 싸라기 변을 봅니다. 정체가 되어 가지 않으면 전하여 腸胃의 밖에 募原 사이에 머무르고 脈에 정체가 되어 달라붙습니다. 오래도록 정체가 되어 가지 않으면 자라나 積을 이루거나 孫脈에 불거나 絡脈에 불거나 經脈에 불거나 輸脈에 불거나 伏衝脈에 불거나 膂筋에 불거나 腸胃의 募原에 불어서 위로 느슨한 근에 이어지니, 邪氣가 넘쳐 흘러나는 것을 이루다 논할 수 없습니다.⁵⁴⁾

『百病始生』의 인체 부위들은 인체를 表分에서 裏分으로 분류했을 때 그 淺深을 나누는 지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 伏衝脈은 皮膚 絡脈 經脈 輸穴 伏衝脈 腸胃 募原의 단계 중 輸穴과 腸胃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체에서 十二經脈 및 臟腑와 다른 차원의 깊이에 위치하는 어떠한 부위인데, 邪氣가 머물렀을 때 “體重身痛”의 증상을 나타내니 사지와는 관계가 없는 인체 부위임을 알 수 있다. 『靈樞·歲露論』에는 伏衝脈의 부위가 보다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衛氣가 風府를 행함에 하루에 1절씩 내려가서 21일이면 내려가 尾底에 이르고,

5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86. “是故虛邪之中人也, 始於皮膚, 皮膚緩則腠理開, 開則邪從毛鬚入, 入則抵深, 深則毛鬚立, 毛鬚立則漸然, 故皮膚痛. 留而不去, 則傳舍於絡脈, 在絡之時, 痛於肌肉, 其痛之時息, 大經乃代. 留而不去, 傳舍於經, 在經之時, 洒淅喜驚, 留而不去, 傳舍於輸, 在輸之時, 六經不通四肢, 則肢節痛, 腰脊乃強. 留而不去, 傳舍於伏衝之脈, 在伏衝之時, 體重身痛. 留而不去, 傳舍於腸胃, 在腸胃之時, 真響腹脹, 多寒則腸鳴飧泄, 食不化, 多熱則溲出糜. 留而不去, 傳舍於腸胃之外, 募原之間, 留著於脈, 稽留而不去, 息而成積, 或者孫脈, 或者絡脈, 或者經脈, 或者輸脈, 或者於伏衝之脈, 或者於膂筋, 或者於腸胃之募原, 上連於膂筋, 邪氣淫洩, 不可勝論.”

22일에는 척골의 속으로 들어가서 伏衝脈으로 흐른다. 그렇게 행하기를 9일이면 缺盆의 가운데로 나와서 그 氣가 위쪽으로 행하므로 그 병이 조금씩 낫는다.⁵⁵⁾

「歲露論」의 내용으로 보아 伏衝脈은 脊柱를 따라 항문과 백회를 관통하는 인체의 정중선 부위를 순행 노선으로 하는 脈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伏衝脈 역시 인체의 대들보가 되는 脊柱가 빠져서 인체 구조를 단순히 지탱하는 것 이상의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기능 수행의 효율 및 편의를 위해 설정한 脈으로 보인다. 「歲露論」에서는 外邪를 방어하는 衛氣가 인체의 심부를 통과할 때의 통로가 되고 있다. 『素問·瘧論』에 나오는 伏膂之脈은 그 쓰인 문장이 『靈樞·歲露論』과 유사하며, ‘伏衝之脈’이 ‘伏膂之脈’으로 바뀌어 학질 발작 시간이 날마다 조금씩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것에 대한 病機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것이 風府로 나옴에 하루에 1절씩 내려가서 25일이면 내려가 尾底에 이르고, 26일에는 척골의 속으로 들어가서 伏膂脈으로 흐른다. 그 氣가 위쪽으로 행하기를 9일이면 缺盆의 가운데로 나와서 그 氣가 날마다 높아지므로 발작이 날마다 더욱 빨라지는 것이다.⁵⁶⁾

‘膂’는 척주 양쪽으로 형성된 근육 즉 등심을 말하기 때문에 伏膂脈의 부위를 척주 양쪽 등심의 안쪽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척주 양방으로 흐르는 足太陽膀胱脈을 놔두고 따로 伏膂脈을 설정한 것은 척주가 수행하는 특수한 기능을 인식하고, 그 기능 수행의 효율 및 편의를 위한 것

으로 짐작된다.

III. 考 察

經絡은 흉복강 속에 있는 五臟六腑와 四肢 및 五管을 계통적으로 이어주는 連絡體系인데, 十二經脈과 十五絡脈, 孫絡, 浮絡으로 층차를 나눈다. 이에 비하여 奇經八脈은 十二經脈에 대해서 ‘기이한 경맥’이라는 뜻의 ‘奇經’으로 불리며, 十二經脈은 ‘정상적 경맥’이라는 뜻에서 ‘正經’이라 불린다. 우리 몸에서 十二經脈의 連絡體系와 奇經八脈은 계통적으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奇經八脈이 十二經脈과 별도로 우리 몸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어떤 것인가?

『黃帝內經』에는 任脈과 衝脈, 督脈, 帶脈, 陽維脈과 陰維脈, 陽蹻脈과 陰蹻脈에 대하여 유주경로와 작용, 병들었을 때의 증상에 대해 『素問·骨空論』과 『靈樞·逆順肥瘦』 등 25篇餘에서 단편적으로 논하고 있다. 十二經脈에 대해 『靈樞·經脈』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논한 것 같은 전면적 논술은 보이지 않는다.⁵⁷⁾ 이들 여덟 脈에 대해 奇經八脈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부여한 것은 『難經』이다. 『難經·二十七難』과 「二十八難」에 이 여덟 脈은 인체의 상하로 흐르는 正經의 十二脈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는데, 마치 홍수에 붓도랑을 가득 채운 물이 넘쳐 깊은 호수로 흘러들면 다시 붓도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脈에 奇經八脈이라는 것이 있어서 十二經에 구속되지 않는 것은 어찌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陽維, 陰維, 陽蹻, 陰蹻, 衝, 督, 任, 帶脈이 있는데, 이 여덟 脈이 모두 經脈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奇經八脈’이라 부릅니다. 經脈에 열들이 있고 絡脈에 열다섯이 있어서 모두 스물일곱의 氣가 위아래로 서로 따르고 있는데, 어찌해서 유독 經脈에만 구속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聖인이 붓도랑을 기획하여 설치하시는 목적은 물길을 잘 통하게

5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338. “衛氣之行風府, 日下一節, 二十一日, 下至尾底, 二十二日, 入脊內, 注於伏衝之脈, 其行九日, 出於缺盆之中, 其氣上行, 故其病稍益.”

5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30. “其出於風府, 日下一節, 二十五日下至骶骨, 二十六日入於脊內, 注於伏膂之脈, 其氣上行, 九日出於缺盆之中, 其氣日高, 故作日益早也.”

57) 白上龍, 朴贊國. 『難經』의 奇經八脈論에 대한 비판적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 17(1). p.16.

하여 물길이 잘 통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림에 붓도랑이 가득 차게 되니, 이러한 때에는 비가 세차고 즐기치게 퍼부어 붓도랑의 물이 멋대로 흘러가므로 성인께서도 물길을 되돌리기를 도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絡脈이 가득차서 넘치는 것이니 모든經脈이 능히 다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58)

“비유컨대, 성인이 붓도랑을 기획하여 설치하였으나 붓도랑이 가득차서 넘치면 깊은 호수로 흘러가버려서 붓도랑을 만든 성인이라도 잡아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의脈이 융성해지면八脈으로 들어가 버리고 되돌아 순환하지 않으므로, 十二經脈이 마찬가지로 잡아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59)

위 『難經』의 문장은 任督脈을 비롯한 여덟 맥이 ‘奇經’으로 불리는 이유를 설명한 최초의 문장이다. 이 문장에서 正經의 十二脈은 ‘붓도랑’에, 奇經의 八脈은 ‘絡脈이 가득차서 넘치는 것’과 ‘깊은 호수’에 비유되고 있다. ‘絡脈이 가득차서 넘치는 것’은 奇經八脈이 絡脈처럼 經脈과 經脈을 연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經脈의 유주경로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經脈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깊은 호수’는 奇經八脈이 絡脈과는 다르게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역에 脈氣를 저장해 둘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奇經八脈은 脈이지만, 유주경로에 구애되지 않고 正經의 脈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 ‘絡’

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하늘로부터 받은 氣를 어느 정도 저장해 둘 수 있으므로 精氣를 저장하는 ‘臟’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奇經八脈의 ‘奇’는 脈이면서 絡과 臟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생리적 특성을 명칭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몸에는 이러한 뜻의 이름을 가진 부위가 더 있다. ‘奇恒之腑’라 불리는 腦, 髓, 骨, 脈, 膽, 女子胞가 그것이다. 이들 奇恒之腑는 ‘腑’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 작용을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臟’처럼 ‘精氣’를 저장하여 그 形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속성을 가진다. 이렇듯 奇恒之腑와 奇經八脈은 모두 그 명칭에 ‘奇’자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奇’자를 사용한 이유도 동일하다. 즉 腑이면서 臟의 속성을 가지거나, 經脈이면서 絡과 臟의 속성을 가지는 생리적 특성이 있다. 또한 腦, 髓, 骨, 脈, 膽, 女子胞는 奇經八脈이 유주하는 부위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실제로 『靈樞·五音五味』⁶⁰⁾의 “衝脈任脈, 皆起於胞中”이나 『難經·二十八難』⁶¹⁾의 “督脈者, …入屬於腦”와 같이 奇經八脈과 奇恒之腑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언급한 서술이 적지 않으며, 그 서술 방식도 ‘起於胞中’, ‘入屬於腦’ 등의 용어가 十二經脈의 臟腑 屬絡관계를 서술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黃帝內經』에서 奇經八脈의 基源으로 볼 수 있는 胞脈, 會厭脈, 伏衝脈, 伏膺脈 등 맥은 자궁이나 會厭, 脊柱 등 五臟六腑에 속하지 않는 인체기관의 특수한 기능을 지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수 맥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奇經八脈과 奇恒之腑 사이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⁶²⁾⁶³⁾ 즉 十二經脈과

58) 尹暢烈, 金容辰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周珉出版社. 2007. p.525. “脈有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 何也? 然, 有陽維, 有陰維, 有陽蹻, 有陰蹻, 有衝, 有督, 有任, 有帶之脈. 凡此八脈者, 皆不拘於經, 故曰奇經八脈也. 經有十二, 絡有十五, 凡二十七氣, 相隨上下, 何獨不拘於經也? 然, 聖人圖設溝渠, 通利水道, 以備不然. 天雨降下, 溝渠溢滿, 當此之時, 霧霈妄作, 聖人不能復圖也. 此絡脈滿溢, 諸經不能復拘也.”

59) 尹暢烈, 金容辰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周珉出版社. 2007. p.532. “比于聖人圖設溝渠, 溝渠滿溢, 流于深湖, 故聖人不能拘通也. 而人脈隆盛, 入於八脈而不環周, 故十二經亦不能拘之.”

6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82. “衝脈任脈, 皆起於胞中, 上循背裏, 爲經絡之海. 其浮而外者, 循腹右, 上行會於咽喉, 別而絡唇口, 血氣盛則充膚熱肉, 血虛盛則澹滲皮膚, 生毫毛.”

61) 尹暢烈, 金容辰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周珉出版社. 2007. p.532. “督脈者, 起於下極之俞, 并於脊裏, 上至風府, 入屬於腦.”

62) 王啓才. 奇經八脈的命名, 功能和特性. 南京中醫學院學報. 1988. No.1. p.34.

63) 王啓才. 經絡學說及其臨床應用. 鍼灸臨床雜誌. 1995. 11(2). p.52.

五臟六腑가 상호 독립적인 배속관계를 형성하고 있듯이, 奇經八脈과 奇恒之腑 사이에도 상호 밀접한 연관체계를 형성하여 十二經脈과 五臟六腑가 하지 않는 인체의 특수한 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동 시스템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가정을 전제로 하면 奇經八脈은 臟腑와의 배속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奇恒之腑와 臟腑배속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衝脈과 任脈, 督脈, 腦, 脊骨과 脊髓, 남녀의 생식기는 모두 인체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체는 앞면으로는 任脈이 축이 되고, 뒷면으로는 督脈이 축이 되며, 3차원 상에서는 衝脈이 축이 되는 좌우대칭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十二經脈 및 十二經脈과 짝이 되는 臟腑들은 대체로 좌우로 나뉘어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奇經八脈과 奇恒之腑 중 衝任督脈과 腦, 脊骨, 脊髓, 남녀 생식기는 十二經脈과 그 짝이 되는 장부들이 이루는 대칭 구조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그림1. 중심축과 좌우대칭

사물의 구조에 있어서 좌우대칭을 이루지 않는 구조보다는 좌우대칭을 이루는 구조가 훨씬 안정적이고 보다 진화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⁶⁴⁾⁶⁵⁾ 식물은 좌우대칭을 잘 이루지 않지만 원충이나 아메바 같은 원생생물과 해면동물, 자포동물은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은 좌우대칭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⁶⁶⁾ 중

심축과 좌우 대칭의 구조물로 구성된 좌우대칭의 구조는 개체의 내부에 독자적인 변화의 축을 가짐으로써, 외부세계의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독자적인 변화의 場을 구축,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생물학자들은 동물의 좌우대칭 구조가 중력에 대항하여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이동을 하고, 외부의 여러 가지 변화요인에 대하여 개체 내부의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한다.⁶⁷⁾⁶⁸⁾ 좌우대칭의 형태는 동물의 진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형태의 발생기에 이미 좌우대칭성이 결정된다. 형태의 발생과정에 있어서 좌우대칭의 동물들은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의 3개의 배를 구성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체의 바깥쪽 덮개와 신경계는 외배엽으로부터 발달하고 소화 기관과 내장은 내배엽으로부터 발달하며 뼈와 근육은 중배엽으로부터 발달한다.⁶⁹⁾ 丁彰炫은 인간 태아의 발생과정에서 형성되는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이 각각 督脈, 任脈, 衝脈에 해당하며 이들이 각각 인체의 후면, 전면, 중앙부로 분화·발달한다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⁷⁰⁾

좌우대칭의 중심축은 개체가 환경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하나는 개체 내부의 좌우 음양이 동적 평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살피고 조절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외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여 개체가 적절히 대응하도록 조정하며, 큰 범주에서의 우주 전체의 변화 축에 개체의 변화 축을 맞추는 것이다. 이미 구현된 독립된 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은 十二經脈과 五臟六腑이다. 이들은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독자적인 세계를 운영하는데, 형태는 좌우대칭이지만 힘에 있어서는 좌우에 편차를 두고 힘의 이동으로부터 변화를 발생시킨다. 이

64) 박문호 저. 뇌 생각의 출현. 서울. 휴머니스트. 2008. p.58.
 65) 김창환. 생명력의 과학. 서울. 지성사. 2003. p.129.
 66) George B. Johnson 저. 전병학, 계명찬, 김애리, 김영희, 김인수, 남상호, 류중호, 문성기, 박경량, 박윤배 외 11인 공역. 생명과학. 파주. 동화기술. 2007. p.432.

67) 김창환. 생명력의 과학. 서울. 지성사. 2003. p.129.
 68) George B. Johnson 저. 전병학, 계명찬, 김애리, 김영희, 김인수, 남상호, 류중호, 문성기, 박경량, 박윤배 외 11인 공역. 생명과학. 파주. 동화기술. 2007. p.336.
 69) George B. Johnson 저. 전병학, 계명찬, 김애리, 김영희, 김인수, 남상호, 류중호, 문성기, 박경량, 박윤배 외 11인 공역. 생명과학. 파주. 동화기술. 2007. p.336.
 70) 丁彰炫. 經脈發生에 대한 가설. 2011 대한한의학원전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11. p.60.

들 十二經脈과 五臟六腑에는 힘의 이동과 변화가 끊이지 않아서 '순환'의 특성을 가진다. 十二經脈과 五臟六腑의 세계에서 전체의 순환을 통괄하는 역할은 心이 맡고 있다. 그러나 心은 左右의 陰陽이 적절하게 힘의 편차를 형성함으로써 전체가 하나의 순환체계 속에 통괄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반면 중심축에 있는 衝任督脈 및 奇恒之腑는 보다 절대적인 차원에서 左右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 순환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左右 편차가 지나치게 되면 좌우 대칭을 채택함으로써 얻은 개체의 독립자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 중심축인 衝任督脈과 奇恒之腑에서 좌우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전략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 교류, 절충 등인데, 대체로 十二經脈과 五臟六腑가 시행한 '순환'작업을 평가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이때에는 또한 十二經脈과 五臟六腑의 평소 순환으로부터 벗어나서 의식이 '집중, 통합'되는 특성을 가진다. 합장, 기도를 하기 위해 두 손을 맞잡고 눈을 감는 행위, 가부좌로 앉아 손을 단전에 모으는 자세 등은 모두 奇經八脈의 작용과 관계가 있다. '任'자가 '말기다, 보충하다'의 뜻이고 '督'자가 '감독하다'의 뜻이며 '衝'자가 '절충하다'의 뜻임은 衝任督脈이 十二經脈과 五臟六腑가 시행한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감독하는 특성을 잘 말해준다. 陰陽維脈과 陰陽蹻脈은 三陰三陽으로 분화되어 있는 인체를 좌측은 좌측끼리, 우측은 우측끼리 묶고 좌측을 우측에, 우측을 좌측에 교차하여 연결함으로써 중심축인 衝任督脈에서 좌우의 불균형을 평가하고 감독하기 쉽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⁷¹⁾⁷²⁾ 이때 十二經脈의 순환체계를 그대로 따라가서는 통합하여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正經의 유주에 구애받지 않고

正經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 '絡'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帶脈은 十二經脈과 五臟六腑가 형성하는 분화발달의 場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개체의 형을 허물지 않도록 적정한 선에서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場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으면 維脈과 蹻脈이 좌측끼리 또는 우측끼리 묶어서 교차 연결하려고 해도 힘들뿐만 아니라, 허리에서 횡으로 한 번 둘러 묶음으로써 개체의 場이 중심축을 향하여 재배열되도록 단속하는 기능을 한다. 지금까지 논한 것은 개체가 스스로의 場에서 동적평형을 이루면서 동시에 좌우균형을 이루도록 평가·조절하는 기능이다.

중심축으로서의 奇經八脈과 奇恒之腑는 개체가 속해있는 우주의 시공간을 파악하여, 파악된 정보에 따라 개체의 적응을 촉발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十二經脈과 五臟六腑의 입장에서 보면 '惡'으로 느껴질 수 있다.⁷³⁾ 十二經脈과 五臟六腑는 스스로 완전한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 끊임없는 순환으로써 그 세계를 영원히 영위하고자 한다. 그러나 형태의 좌우 중심축에 있는 奇經八脈과 奇恒之腑는 十二經脈과 五臟六腑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완전한 세계가 사실은 또 다른 세계의 일부이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수정해야만 하는 불완전한 것임을 각성시킴으로써 十二經脈과 五臟六腑의 희망을 깨트린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고 자라고 2세를 만들고 늙어서 죽는다는 우주 존재의 숙명을 매개함으로써 개체가 꿈쩍없이 그 숙명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이 태어나고 자라고 2세를 만들고 늙어서 죽는 순서로 되어 있는 우주의 속

71) 尹暢烈, 金容辰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周珉出版社. 2007. p.532. "陽維陰維者, 維絡于身, 溢畜不能環流, 灌漑諸經者也. 故陽維起於諸陽會也, 陰維起於諸陰交也." p.550 "陽維維於陽, 陰維維於陰, 陰陽不能自相維, 則振然失志, 滌滌不能自收持."

7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30. "足陽明有挾鼻入於面者, 名曰懸顛. 屬口對入繫目本, 視有過者取之. 損有餘, 益部足, 反者益. 其足太陽有痛項入於腦者, 正屬目本, 名曰眼系, 頭目苦痛, 取之在項中兩筋間. 入腦乃別, 陰蹻陽蹻, 陰陽相交, 陽入陰, 陰出陽, 交於目銳眥, 陽氣盛則瞑目, 陰氣盛則瞑目."

73) 마이클 슈나이더. 이충호 옮김. 자연, 예술, 과학의 수학적 원형. 서울. 京文社. 2002. pp.23-24.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 철학자들은 '2' 또는 '다른 것'의 원리를 디아드(Dyad)라 불렀다. 그들은 2가 신성한 모나드(Monad)로부터 스스로 떨어져나가 통일성에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2를 의심스럽게 생각했다. 그들은 디아드가 원래의 전체성으로부터 대담하게 분리해나오는 성질을 가리켜 '대담함'이라 불렀고, 원래의 통일성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불가피한 갈망의 속성을 '고뇌'라고 불렀다. '고뇌'는 또한 '반민', '모자람', '거짓', '착각' 등으로도 불렀는데, 그리스 인은 모나드만이 전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양면의 열굴'이라든가 '일구이언(一口二言)'과 같은 표현에는 2가 지닌 부정적인 측면이 반영돼 있다."

명을 한의학에서는 ‘天癸’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生, 長, 生殖, 老, 死의 각각의 단계에 우주로부터 그 시기에 해당하는 ‘天癸’가 개체의 중심축을 통하여 개체에게 전달된다. 衝任督脈과 奇恒之腑에서는 우주로부터 받은 天癸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陰陽維脈과 陰陽蹻脈을 통하여 개체가 새로 내려 받은 天癸의 내용에 맞추어 계통적으로 재편되도록 조절을 촉구한다. 『難經』에서 奇經八脈을 ‘깊은 호수’에 비유한 것은 奇經八脈이 天癸를 받아 간직함으로써 精氣를 저장하는 ‘臟’의 속성을 가짐과 더불어, 호수에 저장된 물이 일반 하천의 물과 같지 않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호수는 하천의 흐름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 속에 담긴 물이 일반 물과는 다르게 매우 특이한 성상을 띠 수 있다. 『難經』 「二十七難」과 「二十八難」에서 聖人は 十二經脈과 五臟六腑가 이루는 後天세계를 기획·설비·통괄하는 자로서 君主인 心이라 할 수 있다. ‘深湖’로 표현한 깊은 호수는 이 聖人이 만든 것이 아니며, 하늘에서 많은 비를 내려 호수로 흘러든 물은 聖人의 통제 밖에 있다고 하였다. 『難經』의 이 비유는 衝任督脈이 十二經脈과 五臟六腑로 이루어진 後天세계의 소속이 아니며, 따라서 君主인 心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우주로부터 받은 정보를 별도로 간직함을 상징한다.

『十四經發揮』와 『奇經八脈考』를 포함하여 역대 의서들에 奇經八脈의 유주부위나 穴位, 病症, 脈象에 대하여 많은 설명들이 덧붙여졌으나, 奇經八脈의 인체 내 位相을 取象함에 있어서는 한결 같이 위 『難經』의 문장을 언급하는 데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정황으로 보아, 『難經』의 이 비유는 『黃帝內經』 이후로 奇經八脈의 전체적인 象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醫家들이 奇經八脈이 十二經脈의 경맥순환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전제 한 뒤에, 결국에는 十二經脈의 순환 체계에 넣어 經脈 순환의 과불급을 조절하는 저수지의 역할로 귀결시키는 모순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된 주요한 원인은 奇經八脈에 대한 記述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은 데에 있다고 생각된다. 奇經八脈에 대한 記述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은 것은, 그 내용의 중요도가 낮기 때문은 아니라고

보인다. 『素問』의 첫 번째 편인 「上古天真論」에 사람의 생식과 수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분명히 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추측컨대, 十二經脈과 五臟六腑를 중심으로 인체의 생리병리를 설명하려는 주류학과들에 의해서 奇經八脈과 奇恒之腑의 학설이 채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十二經脈과 五臟六腑를 중심으로 한 학설은 인체를 우주와 같은 小宇宙로 놓고, 인체의 입장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돌아간다는 ‘천동설’의 관점과 동일한 것이다. 반면 奇經八脈과 奇恒之腑의 학설에서는 제3자가 인체의 밖에서 인체와 우주를 동시에 조망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체는 우주의 일부로서 독립자존을 영위하기 위해 좌우대칭의 형태를 이룬 후에, 개체 내에 힘의 편차를 발생시켜 내순환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우주의 눈치를 보아가며 편차를 감도, 조절해야 하는 고달픈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고 자라고 2세를 만들고 늙고 죽는 순서로 된 우주의 숙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한부 존재이다. 이러한 것은 지구가 우주의 일부로서 태양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를 돌아간다는 ‘지동설’의 관점과 동일하다. 하늘과 대등한 입장에서 ‘合一’을 꿈꾸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實在와 장차 소멸될 운명임을 일깨우는 제3자는 달갑지 않을 뿐만 아니라 ‘惡’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그 제3자가 실제로는 개체의 독립자존이 가능하도록 생존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이유로 十二經脈과 五臟六腑를 중심으로 인체의 생리병리를 설명하는 주류학과들에 의해서 奇經八脈과 奇恒之腑의 학설은 채택되지 않았고, 그 결과 奇經八脈과 奇恒之腑에 대한 記述은 醫書들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또한 그에 대한 記述이 있다고 해도 계통적으로 서술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절대적인 정보량이 부족한 醫家들이 奇經八脈과 奇恒之腑에 대해 설명함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十二經脈과 五臟六腑와의 연관성을 주로 언급하게 되는 모순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IV. 結 論

1. 『難經·二十七難』의 “脈有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은 醫學史에서 奇經八脈에 대한 최초의 정의이며, 奇經八脈의 체계가 十二經脈의 經脈循環으로 조절되거나 구애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靈樞』 「脈度」 「五十營」 「營氣」 중 十二經脈의 순환체계에는 督脈, 任脈, 蹻脈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難經·二十七難』의 “脈有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은 『黃帝內經』의 경맥순환 체계와 모순되는 학설이라고 할 수 있다.

2. 『黃帝內經』에는 유주경로가 비교적 뚜렷한 督脈, 任脈, 衝脈, 蹻脈 외에 유주경로가 뚜렷하지 않은 帶脈과 維脈을 비롯하여 胞脈, 會厭之脈, 伏衝之脈, 伏膂之脈 등 奇經八脈의 基源으로 보이는 맥들에 대한 기술이 있다. 이들은 모두 五臟六腑와 독립적인 屬絡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맥들이다.

3. 『素問·刺腰痛論』의 陽維之脈과 飛陽之脈은 각각 陽維脈과 陰維脈의 基源이 되는 맥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맥은 유주노선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맥동 구간(a section of pulse)’이다.

4. 『素問·評熱病論』의 胞脈과 『素問·奇病論』의 胞絡脈, 『靈樞·憂患無言』의 會厭之脈은 인체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궁 및 會厭과 같은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장부 및 기능수행 부위를 연결하는 특수 맥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生殖이나 音聲의 발생 등 특수 작용의 고유성을 보존하기 위해 十二經脈의 일반적인 순환체계에서 벗어나서 인체의 몇몇 부위에 한정된 순행노선을 가진다. 이러한 점은 “不拘於十二經”의 해석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胞脈, 胞絡脈, 會厭之脈의 노선을 연결한 자궁 및 생식기→少陰脈→咽喉의 구간은 任脈, 督脈, 蹻脈, 衝脈의 유주노선과 중첩되는 바가 많다.

5. 『靈樞·百病始生』과 『靈樞·歲露論』의 伏衝之脈과 『素問·瘧論』의 伏膂之脈은 인체의 脊柱를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위로 인식하고 그 기능 수행의 효율 및 편의를 위해 설정한 맥으로 짐작된다.

6. 奇經八脈은 脈이지만, 유주경로에 구애되지 않고 正經의 脈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 ‘絡’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先天의 氣를 간직하

로 精氣를 저장하는 ‘臟’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奇經八脈의 ‘奇’는 脈이면서 絡과 臟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생리적 특성을 명칭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奇經八脈과 奇恒之腑는 상호 밀접한 연관체계를 형성하여 十二經脈과 五臟六腑가 하지 않는 인체의 특수한 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동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8. 衝脈과 任脈, 督脈, 腦, 脊骨과 脊髓, 남녀의 생식기는 모두 인체의 좌우대칭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다. 좌우대칭의 중심축은 개체가 환경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체 내부의 좌우 음양이 동적 평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살피고 조절하는 역할과 외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여 개체가 적절히 대응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우주 전체의 변화 축에 개체의 변화 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9. 『難經·二十七難』의 “脈有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은 奇經八脈 및 奇恒之腑가 인체의 좌우대칭 중심축으로서 좌우에 대칭적으로 벌려 있는 五臟六腑 및 十二經脈의 순환 작용을 평가, 감독, 조절하고, 동시에 天癸에 맞추어 인체가 재편되도록 살피고 이끌어가는 고차원적인 작용을 하는 것을 나타낸 말로 해석할 수 있다.

感謝의 말씀

본 연구는 2012년도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에 의한 결과임.(KHU-20110698)

參考文獻

<논문>

1. 李東鎬, 朴贊國. 奇經八脈 理論의 形成과 發達에 관한 醫學史的 考察. 大韓原典醫學史學會誌. 1996. 10. p.722. pp.671-725.
2. 金容辰. 黃帝內經與難經中關於奇經八脈理論的考察. 韓國醫學史學會誌. 2000. 13(2). p.60, 61. pp.57-61.
3. 片誠範, 姜政秀. 奇經八脈의 生理作用, 流注經路,

- 病證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韓醫學研究所論文集. 1998. 7(1). pp.411-434.
4. 尹鍾和, 奇經八脈에 관한 研究. 동서의학. 1991. pp.48-64.
 5. 白上龍. 正經과 奇經의 相互關係에 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1. 14(1). pp.1-10.
 6. 白上龍, 朴贊國. 『難經』의 奇經八脈論에 대한 비판적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4. 17(1). p.16. pp.15-27.
 7. 李起成, 尹鍾和. 奇經八脈과 八脈八會穴에 관한 研究. 大韓氣功醫學會誌. 1998. 2(1). pp.103-118.
 8. 李俊範, 金慶鎬, 尹鍾和. 奇經八脈에서의 鍼과 藥의 相關性 연구-『鍼方六集』중 「旁通集」을 중심으로-. 大韓鍼灸學會誌. 1998. 15(1). pp.123-134.
 9. 洪永植, 李秉烈. 奇經八脈과 八脈交會穴에 對한 文獻의 考察. 大田大學校韓醫學研究所論文集. 1996. 5(1). pp.329-344.
 10. 金京煥, 金慶鎬, 尹鍾和, 金甲成. 氣功의 周天功과 奇經八脈에 관한 고찰. 大韓鍼灸學會誌. 1995. 12(2). pp.249-178.
 11. 王啓才. 奇經八脈의 命名, 功能和特性. 南京中醫學院學報. 1988. No.1. p.34.
 12. 王啓才. 經絡學說及其臨床應用. 鍼灸臨床雜誌. 1995. 11(2). p.52.
 13. 丁彰炫. 經脈發生에 대한 가설. 2011 대한한의 학원전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11. p.60.
 5. 李榭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19.
 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50, 84, 97, 111, 113, 115, 130, 189, 267, 282, 286, 295, 338.
 7. 金達鎬 編譯, 金重漢 監修. 補注注解 黃帝內經靈樞. 서울. 醫聖堂. 2002. p.479, 480.
 8. 尹暢烈, 金容辰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周珉出版社. 2007. p.525, 532, 550.
 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24, 153, 166, 176, 209.
 10. 南京中醫學院 校釋. 諸病源候論校釋 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193.
 11. 上海中醫學院中醫文獻研究所 主編. 歷代中醫珍本集成 十. 宋 史堪 撰. 史載之方.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p.42-43.
 12. 박문호 저. 뇌 생각의 출현. 서울. 휴머니스트. 2008. p.58.
 13. 김창환. 생명력의 과학. 서울. 지성사. 2003. p.129.
 14. George B. Johnson 저. 전병학, 계명찬, 김에리, 김영희, 김인수, 남상호, 류충호, 문성기, 박경량, 박윤배 외 11인 공역. 생명과학. 과주. 동화기술. 2007. p.336, 432.
 15. 마이클 슈나이더. 이충호 옮김. 자연, 예술, 과학의 수학적 원형. 서울. 京文社. 2002. pp.23-24.

<단행본>

1. 滑伯仁 著. 承澹齋 校註. 校註十四經發揮. 上海衛生出版社. 1955(未詳). p.75.
2. 李時珍. 奇經八脈考. 史世勳, 賀昌木 主編. 李時珍全集.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4. p.3628, 3629.
3. 張介賓 著. 類經圖翼. 서울. 一中社. 1992. p.314.
4. 黃龍祥 著. 朴炫局, 尹鍾和, 金基郁 共譯.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범인문화사. 2007. p.607. pp.423-424.

<사전류>

1.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2.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182-183.

